

# “인간 이순신’은 섬기는 리더십의 표본”

대하소설 ‘이순신의 7년’ 완간 정찬주 작가  
3년 전부터 전남도청 홈페이지 연재  
고증·현장답사 ‘임진왜란’ 접근  
종교 본질 묻는 차기작 준비 중



정찬주 작가를 만나러 가는 날 봄비가 내렸다. 오랜만에 내린 비는 가을이었던 대지를 촉촉이 적셨다.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도 제법 물이 올라 푸른빛이 감돌았다.

작가가 거주하는 곳은 화순 이양의 쌍봉사 인근에 자리한 이불재(耳佛齋)라는 처소였다. “귀를 씻어 불(佛)을 이룬다”는 뜻처럼 세상의 번잡한 소리는 바람소리에 씻겨나갈 것 같은 곳이었다.

작가는 지난 2000년 “광속도로 달리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에 터를 잡았다. “저장거리에 물들지 않고 솔바람 소리 벗 삼아 살기 위해서”라는 말이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보성 출신의 작가는 그동안 불교적 사유가 배어 있는 소설과 산문으로 독자들을 위로하는 글을 써왔다. 지난해에는 광주일보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연재해 많은 이들에게 지중해 연안의 풍광과 문화를 특유의 개성적인 문체로 그려냈다.

봄비가 내리는 날, 산중의 그를 찾은 연유는 반가운 소식 때문이었다. 작가에게 반가운 소식은 대체로 신작을 발간했거나, 문학상을 받았거나 두 가지일터였다. 예상했던 대로 작가는 그동안 집필해왔던 대하역사소설 ‘이순신의 7년’(전 7권·작가정신·사진)을 완간했던 모양이다.

사립문에 내걸린 ‘집필중’이라는 표지판 앞에서 잠시 망설임이 안으로 들어섰다.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며 작가는 ‘바깥세상’에서 찾아온 기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산중에 떨어져 있어 조금은 외로워 보일 것 같았지만 이번의 착각이었나보다. 7권 분량의 소설을 쓰기 위해 창작의 고투를 지냈다는 느낌보다 일상을 수행하듯 살아가는 이의 편안함이 배어났던 것이다.

“백성들의 충의는 넘쳤지만 그것을 담아낼 일감이 없었어요. 이순신 이야기를 매개로 당대 민초들의 삶과 희



화순 쌍봉사 인근 이불재(耳佛齋)에서 거주하며 창작을 하는 정찬주 작가.

생을 재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작품을 올려놓으며 작가는 소설의 주제랄까, 쓰게 된 배경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난 몇 년간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반문하듯 물었다. 아마도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적 격변에 대한 단상인 듯 했다. 그러면서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에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고 받드는 리더십이 구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작가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소설을 썼다. 소설은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인기리에 연재됐고 기존의 ‘영웅 이순신’이 아닌 ‘인간 이순신’으로 재탄생됐다.

“작품은 이순신이 1591년 전라 좌수사로 부임해 1598년 조랑해전에서 최후를 맞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며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인간 이순신을 입체적으로 조명했죠.”

작가는 이순신 뿐 아니라 선비, 장수와 의병, 승려, 이름 없는 민초들의 활약상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철저한 고증과 풍부한 사료, 현장 답사를 통해 이들의 삶을 복원해 임진왜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히 소설은 ‘16세기 호남의 풍물지’라 해도 될 만큼 남도 방언과 음식, 풍속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이순신 휘하의 장수들 송이림, 정길 등 호남 출신 인물들이 구사하는 사투리는 작품을 풍성하고 감칠맛나게 한다.

“기존의 소설에는 호남 장수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나 임란 당시 문헌에 따르면 90% 이상이 호남 출신이었어요. 당연히 (언어는 곧 정신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라도 정신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작가는 이순신이라는 거시적 화두를 미시적 관점으로 되살려냈다. 사건과 자료의 충실한 재현에서 나아가 경험에 내재된 ‘진실’에 근접하고자 한 것이다. “임진왜란을 현미경으로 바라봤다”는 말의 의미가 오히려 다가왔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처마 밑으로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이 산중의 운치를 더했다. 바둑을 두다 보니 도끼가 썩는 줄 몰랐다는 어느 설화가 떠올랐다. 밖을 내다보니 집필실 창문 너머로 작은 암자가 보였다. ‘無名山房’(무명산방). 작가는 “법정스님이 생전에 이곳에 오셔서 직접 써준 글귀”라며 “저장거리에 살더라도 물들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작가의 법명이 무명(無名)인 것은 그 때문이다.

“산중에 있다보니 자칫 게을러질 수도 있겠다”는 이번의 질문에 그는 빙긋이 웃으며 ‘호미 이야기’를 꺼냈다.

“이곳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새벽이었어요. 밖을 내다 보니 농부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날로 당장 화순 이양정에 가서 호미를 하나 샀습니다. 나태해지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호미를 보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게으름을 피우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저자는 종교에 천착하는 소설을 펴낼 계획이다. 모 인터넷 매체에 연재를 시작했고 종교란 무엇이며, 본질은 무엇인지를 되짚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 산중 너머로 안개가 낮게 내려와 있었다. “관념으로서의 종교가 아닌 행위로서의 종교의 본질을 묻는 소설이지요. 경전의 해석보다는 실천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작정입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조각가 아니쉬 카푸어, 제프 쿤스, 쿠사마 아요이, 백남준, 김환기, 이우환..

지난해 미술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세계적 거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다음 해인 '2017 대구아트페어'에서다. 미술계의 화제 속에 개막된 대구아트페어는 창설 10주년의 위상을 보여준 자리였다.

규모와 내용에서 여타 아트페어와 '급'이 달랐다. 국제갤러리 등 국내 메이저 화랑에서부터 유수의 해외 화랑까지 101개에서 총 50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매출도 역대 최고치인 48억 원에 달했다.

협회, 광주미술협회로 주관기관이 바뀌는 등 전담 조직과 마케팅의 부재로 '아트페어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앞선 데 맞춘 격으로 올해는 주관기관 공모단계에서 주최 측인 광주시와 단독음모한 광주미술협회의 불협화음이 불거져 오는 9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내용은 이렇다. 광주미협은 2018 아트페어를 맡을 주관단체 공모에서 시가 예술행사의 특성을 무시한 간간하고 고압적인 행정을 일관했다며 공모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아트광주가 문광부의 평가에서 최하위라 다른

## 광주아트페어 '잔혹사'

무엇보다 차별화된 기획력이 돋보였다. 주최 측인 대구화랑협회는 대구미술의 역사를 조명할 '대구 천재화가 이인성 특별전'과 청년작가 발굴을 내건 '청년미술프로젝트'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그 결과, 대구아트페어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지원을 받는 아트페어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물론 대구아트페어에도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다. 2~3년까지만 해도 비슷한 시기에 창설된 부산국제아트페어에 밀려 체면을 구겨야 했지만 대구화랑협회의 주장이 바뀐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참가화랑의 3분의 1을 몰살시키는 혁신을 단행했다. 작가한테 부스 사용료를 내게 하거나, 전시는 하지 않고 페어에만 참가하는 '장사꾼' 화랑을 배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광주아트페어(이하 아트광주)가 또다시 존폐기로 처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문화재단, 한국미술

없는 9위를 기록한 건 주관단체인 광주미협의 부실한 보조금 관리와 운영이 한몫한 만큼 엄격한 공모절차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아트광주는 민간주도로 열리는 타지역과 달리 국비와 시비 등 5억 원의 공적자금으로 치러진다. 때문에 공공성과 상업성이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단체가 주관해야 한다.

사실상 이번 광주미협의 보이콧으로 올해 아트광주의 운명은 광주시의 '손'으로 넘어갔다. 빠른 시일 내에 전국 공모에 들어간다는 게 시의 방침이지만 개막을 6개월 앞둔 촉박한 상황에서 역량을 갖춘 단체들이 응모할지는 의문이다.

새봄이다. 광주는 언제쯤이면 이 지긋지긋한 아트페어의 잔혹사를 끝내고 산뜻한 출발을 하게 될까. 흑역사 '무늬만 아트페어'에 이끌려 그동안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소홀한 건 아닌지 되돌아 볼 때다. 지역 작가와 컬렉터의 만남이 꼭 아트페어여야 되는 건 아닐 테니.. /제작국·문화선임기자

## 인문학으로 호남 들여다보기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강좌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4'가 열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배수인)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홀에서 6차례에 걸쳐 시민인문강좌를 연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시민강좌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인문적 재미와 감성을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전라도 천년, 지역민의 삶과 사

상 그리고 자연(김화성 작가,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15일=호남인의 기원과 문화원형(문안식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장) ▲20일=호남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최현선 전남도립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22일=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정창권 고려대 교수) ▲27일=한국의 뿌리, 족보: 과거와 현재 미래(박홍갑 역사학자,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29일=호남 서예가 열전(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 희망자는 8일까지 전화(062-234-2727)로 접수하면 된다. /전문기자 ej6621@

## 광주문화재단 '만만계' 참여자 이달까지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모금 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에 참여할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모집한다. '만만계'는 전라 협동조직인 '계'에서 착안한 모금 프로젝트로 재단과 문화예술인·단체가 온·오프라인 모금활동을 전개해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모금활동 외에 네이비 해피빈,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프로젝트 스토리텔링을 통해 온라인 모금활동을 진행한다.

만만계가 타 메세나 프로젝트와 다른 점은 모금액에 1 : 1 매칭해, 재단이 지원하는 금액이 '이자'가 더해진다는 점이다. 선

정된 문화예술인·단체는 목표 모금액 달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갯날(100만원 이상 모금 달성/모금 기간 종료)'에 모금액 1만 원당 1만 원을 더해 최종 지원을 받는다.

공연예술·시각예술·문학·다원예술 또는 신규 예술장르 등 모든 장르에 걸쳐 참여 가능하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31일까지 이메일(gjcf\_give@g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95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공립박물관 13곳 우수인증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김치박물관, 강진고려청자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 등 지역의 공립박물관 13곳이 공립박물관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전국 190개 평가 대상 기관(등록 후 3년 경과 공립박물관) 중 123곳을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운영 내

실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6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번 평가인증제에는 나주 한국전연염색박물관, 목포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목포문학관, 생활도자박물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강진시문학파기념관, 영암도기박물관, 농업박물관, 보성 한국차박물관도 포함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

**천만홀릭 커밍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

CHANNEL